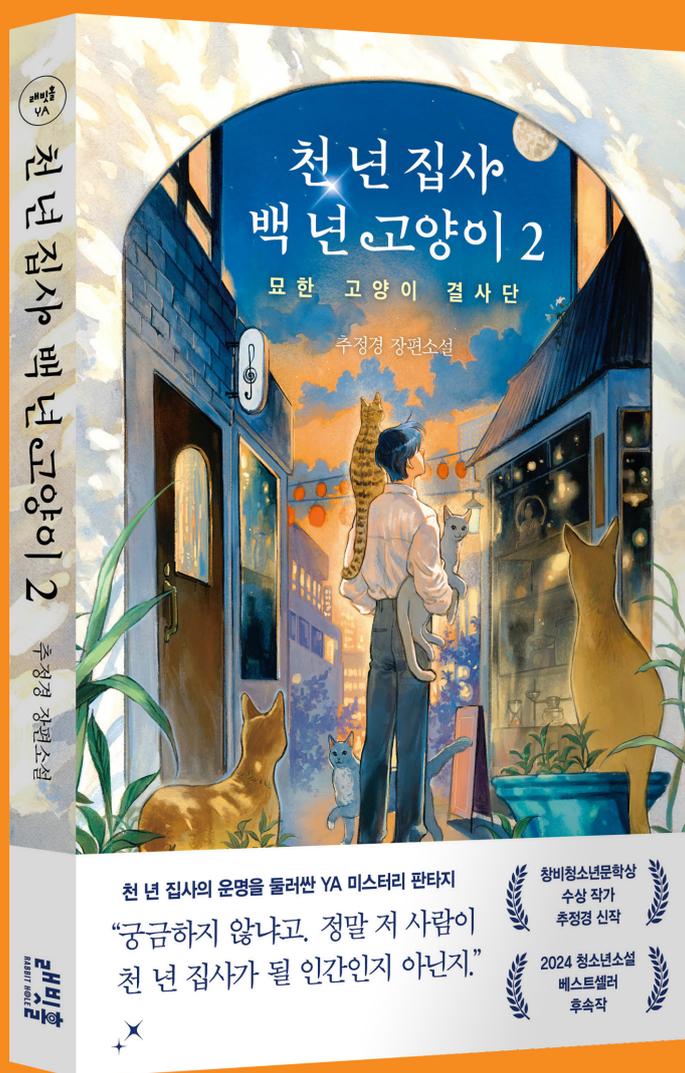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천년 집사 백년 고양이2 묘한 고양이 결사단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판타지, 스릴러, 동물권, 생명 존중

※ 책 소개

천 년 집사의 탄생이 가까워 오자, 이를 막기 위해 이집트 전설 속 고양이 '라의 사자들'이 한국을 찾는다. 고양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묘(猫)한 결사단'을 결성한다. 고덕과 테오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터전과 그 위에 살아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라의 사자들에 맞선다. 하지만 그들의 압도적 힘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불계를 수호해 온 '밀적금강역사'뿐이다. 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른 채 위기를 맞는 결사단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놀랄 만한 정체를 드러내며 대립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다.

한편, 새끼 고양이의 생명을 앗아가며 고양이의 신체 능력을 얻은 '연쇄 킬러'가 더 강력한 능력을 탐하며 고양이들을 노리기 시작하고, 천 년 집사의 자리에 먼저 올라 세상을 어둠으로 몰들일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점차 현실이 되어간다. 동시에, 고양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잔혹한 애니멀 호더 '위진호'가 새로운 악의 축으로 등장해 수많은 생명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한 생명을 쉽게 얻고 더 큰 능력치를 취하려는 자'와 '능력을 얻은 뒤 고양이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의 극명한 대비는 과연 누구에게 천 년 집사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는다. 혼란과 공포가 뒤엉킨 세계 속에서, 고덕과 테오는 과연 연쇄 킬러의 폭주를 막고 진정한 천 년 집사가 되어 고양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 학습 목표

- ① 전작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읽기를 통해 소설의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깨달음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작품 관련 지식 탐색하기	
2	독서 중 활동	1. 라의 자식들 1. (배경지식 쌓기) 아비시니아 고양이에 관한 정보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및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3		2. 두 번째 능력 1.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고 내면화하기 2.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3.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4		3. 애니멀 호더 1. (창의적 읽기)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 문제 해결 방법 찾기 2. (1권 이어 읽기) 인물 행동의 개연성 파악하기 3.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4. (추론적 읽기) 소재 및 인물의 상징성 추론하기	
5		4. 세 번째 후보 1. (창의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정보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인물 정보 정리하기 3.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6		5. 존남의 고백 1. (1권 이어 읽기 + 사실적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인물의 특징 및 심리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 사실적 읽기 + 비판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 인물의 이름 평가하기	
7		6. 저울가게 1.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비교하기 + 소재의 정체 추론하기 2. (1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인물의 정체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속 문제의 해결 방법 찾기	
8		7. 10년 전, 첫 만남 1.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관계 정리하고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9		8. 고양이 결사단(아비시니아 대 밀착금강역사) 1. (1권 이어 읽기 + 사실적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 사실적 읽기) 구절의 의미와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4.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을 토대로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10		독서 후 활동	동물보호 캠페인 활동

■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 탐구하기

1. 고양이의 품종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31가지 고양이의 품종을 빠르게 알아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U6GgEHpc_l4

2. 여러분이 집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 중 어떤 고양이의 집사가 되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 참고 영상: 고양이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이 고양이, 함께 알아보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CnRzaT6Oe9M>

3. 다음 영상을 보고 고양이를 키울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EP.1] 이 영상 보기 전에는 고양이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고양이 단점 10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BZWtYXFqewM>

■ 작품에 영향을 끼친 철학 탐구하기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불교 철학에 대해 정리해 보고,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 ▶ 참고 영상: 불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C90I4hd-7Ik&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4>

1. (배경지식 쌓기) ‘아비시니아 고양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양이 오래 키웠다고 했죠?”

“네.”

“들어와서 봐요.”

조심스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직원은 트렁크를 들여다보며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머, 아비시니아 고양이네요.”

“아비…… 뭐요?”

“아비시니아요. 가장 오래된 고양이 품종 중 하나인데, 이집트 벽화 고양이라고도 불려요.”

- ▶ 참고 영상: 설마 아비시니안을 입양하시려구요..? 입양 전에 알아야 할 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ZPng5tlrp9o>

2.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라의 전사들’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아누비스	뜻: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부적을 남기는 능력
보마니	뜻:

2-2. 라의 전사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2-3. 라의 전사들에 대적할 수 있는 인간계 밖의 두 존재는 누구인지 찾아 써 봅시다.

3. (1권 이어 읽기) <보기1>이 <보기2>의 설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1>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가 지하 세계를 방문할 때마다 고양이로 모습을 바꾼다고 믿었다. 라가 여덟 명의 다른 신을 낳았고, 고양이의 모습을 한 신이 아홉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했다. 아홉 개의 목숨마다 태양신의 능력이 깃들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독창적인 동물인 고양이로 이어졌다는 게 전설로 남았다.

윤회를 거듭하는 고양이는 회차마다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거꾸로 최대치의 능력을 확인하면 고양이의 윤회 차를 알 수 있기도 했다. 고차의 고양이일수록 자신의 능력치를 숨기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였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78-79쪽.

<보기2>

“글쎄, 내가 읽는 것은 내 힘 아래의 소용돌이들인데, 라의 전사들이 가진 힘은 너무 크고 오래되어서 종잡을 수 없어. 고대의 원력을 소유한 자들이라 읽을 수 없구나.”

“세상에…… 할멈이 읽지 못하는 존재도 있어요?”

“고대의 원력이라니까 그러네. 이 고양이 환생의 법칙을 만든 것도 그들이고, 지금까지 그걸 견지시키는 것도 그들이야. 그들의 말이 곧 법이다, 막내야.”

할멈은 그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다음을 참고하여 '경계의 언어'에 대해 알아보시다.

“그럼 매리 너는?”

“2회차이신 나는 **경계의 언어**를 알지. 고양이의 말이 아니라 생명들의 다양한 언어, 더 넓게는 바람에 실려 오는 지구의 숨소리까지. 그래서 내가 네 개떡 같은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네.”

“뉘, 좋을 대로.”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225쪽.

몇 평 되지 않은 공터에 자라고 있는 질경이와 이름 모를 잡초의 대화였다.

그저 벤치에 앉아 발아래 피어난 질경이와 잡초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고덕의 마음은 저릿했다. **경계의 언어**를 얻고 난 뒤,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이 얼마나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인간으로 백 년을 산다 해도 몰랐을 세계를 이해하게 된 후 살아 있는 모든 것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1-2. (감상적 읽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생명체를 찾아 쓰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예) 고무나무	오늘은 물 안 줘도 돼. 어제 너희 반 지민이가 줬거든.

2. (1권 이어 읽기) 다음을 참고하여 고덕이 **삭정**으로부터 2회차 목숨을 받은 과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삭정으로부터 2회차 목숨을 받은 뒤로 나무가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거대한 바다의 울림을 듣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했다. 거대한 존재는 온몸을 울리는 소리를 냈고, 작은 존재는 컷가에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를 냈다.

(가) 삶은 눈동자와 거래를 했다.

자신의 터전이 짓밟혀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뱉지만 그중 한 마리를 천 년 집사에게 내어 주어야 했다. 눈동자는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다리를 못 쓴 채로 태어날 것이란 걸 미리 알려 주었다. 지킬 수 없는 그 한 마리를 경찰 인간에게 내어 주면 남은 세 마리를 지킬 새로운 터를 얻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나) “저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잘못됐던 게 아니야.”

“…….”

과거와 과거의 죄를 볼 수 있는 줄무늬의 말이었다.

“제 어머니가 일부러 관절을 탈구시킨 거야. 눈동자인지 뭔지와 거래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눈동자의 예언은 태어나기도 전에…….”

“저 어머니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거지. 어머니는 네 마리 중 가장 약한 이 녀석을 골라 다리를 탈구시켰어.”

(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가. 불빛은 켜지 말고, 이름을 세 번 불러 주고 목숨을 거둬.”

“죽일 마당에 이름을 지어 주는 게 더 잔인하지 않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죽음이 헛되지 않지.”

그의 눈이 거실에 있는 죽은 화분의 나뭇가지에 가닿았다. 경상도 출신인 어머니는 삭다리라고 불렀고 고덕은 삭정이라고 배웠던 나뭇가지였다.

삭정이, 죽음을 앞둔 이 새끼 삶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으려나.

(라) “너는 어차피 날 죽여서 목숨을 받진 않을 거잖아.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2회차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는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아문 내 다리를 보여 주고 치료비로 그걸 요구했지.”

〈중략〉

“그래서 받았어?”

“엄마는 네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더군. 다 차려진 밥상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렸다고. 대답 대신 날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했어. 하지만 난 엄마가 답하기 전에 떠날 생각이 없었어.”

그 대목에서 누렁지와 분홍의 눈이 반짝였다. 이 바보 같은 고덕 선생을 설득하기보다 차라리 야생 삶을 설득해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란 직감이 왔다.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방법이 뭐래?”

“고대 이집트 예식에 따라 사람 인간인 널 내가 집사로 삼으면 돼.”

(라) 고덕이나 다른 고양이들은 몰랐지만 지켜보던 테오는 삶의 강력한 생명력이 고덕에게 부족한 반쪽을 메우고 그를 2회차로 데리고 갔음을 알았다.

만약 다른 고양이의 보은이었다면 고덕의 회차는 영원한 미결로 남았을 것이다. 아주 운이 좋거나 아주 운명적이거나.

제 생명을 건 보은권이 고덕에게 넘어간 순간 고덕의 몸을 감싸던 황금빛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한 생명의 가치를 덧입게 된 고덕은 2회차 능력을 갖춘 집사로 거듭났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287-313쪽.

3. (1권 이어 읽기) 다음을 참고하여 '삼순'에 대해 알아보시다.

그 말에 고덕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고덕에게 집을 비워 주고 떠나 버린 일곱 마리의 고양이들이었다. 마지막 삼순의 말이 아니었다면 고덕은 그들이 왜 떠났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새끼 고양이에게 목숨 하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던 삼순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분홍은 테오가 다른 차 근처를 찾아보기 위해 떠나자 심드렁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무성한 관목 숲 사이를 향해 혼잣말하듯 외쳤다.

“이래도 진심이 아니야?”

분홍의 말이 울음소리가 되어 숲으로 뻗어 나갔다.

“집을 나와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 궁금하지 않냐고. 정말 저 사람이 천 년 집사가 될 인간인지 아닌지. 발톱의 때 같은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것은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이자 자기 집사인 고덕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분홍의 혼잣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은 누군가의 귓바퀴에 온전히 내려앉았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렀을 때, 고덕은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고양이 그릇 안에 채워 둔 사료는 수북이 쌓여 있었고 캣타워는 텅 비어 있었다. 비릿한 고양이 특유의 냄새도 희미해져 있었다. 뭔가가 이상했다.

일곱 마리의 고양이들이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졌다.

〈중략〉

싱크대 안과 냉장고 안, 이불장까지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 뒤 베란다로 가니 창틀 앞에 검고 누런 점박이 색깔의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엄마가 특히나 예뻐했던 '삼순'이라는 아이였다. 녀석의 눈앞에 있는 창문 방충망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찢어진 채였다. 그 방충망 사이에 여러 색깔의 고양이 털이 박혀 있는 걸로 보아, 다른 고양이들은 저 방충망을 찢고 탈출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중략〉

삼순이 방충망을 벌리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고덕이 그를 붙잡았다.

“잠깐, 넌 왜 떠나는데?”

“우린 이 집을 비워 주기로 했어. 난 승산 없는 경주마에 돈을 다 걸었고 결과물은 네가 보여 줘야지. 자, 이제 증명해 봐, 인간!”

그 말을 남기고 삼순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듯 처연한 얼굴로.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42-147쪽.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창의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병원에 좀 이상한 사람을 뽑았어요. 지윤 선생님이 이력이 짧고 화려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원장님은 그 사람이 고양이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격시켰거든요. 근데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고양이들만 데리고 놀아요. 좀 섬뜩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구는데, 그냥 ‘애니멀 호더’ 같고,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은 자기가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고.”

“애니멀 호더? 그게 뭐야?”

“아, 호더는 자기가 키울 능력은 안 되는데 동물을 컬렉션처럼 모으기만 하고 방치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밥을 주지도 않고 배변을 치워 주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학대자에 가깝죠. 가끔은…….”

1-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애니멀 호더’에 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tbsTV] 애니멀 호더, 또 다른 이름의 동물 학대
<https://www.youtube.com/watch?v=KC90Pwzs73s>

1-2. 애니멀 호더를 비롯한 동물 학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1권 이어 읽기) 길연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근데 원장님, 저희 지난번에 면접 본 선생님은 안 오세요?”

“그러게, 연락이 없네요. 먼저 연락해 볼까요?”

“됐어요. 면접 볼 때 집이 멀다고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눈빛을 보고 아니구나 싶었어요.”

“무슨 눈빛?”

“소개팅 끝나고 헤어질 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눈빛. 분명 얘기도 잘 통하고 재미있었는데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눈을 피하며 보이는 그 진심, 아니구나 싶었어요.”

“눈을 피했나? 그 선생님 꼭 울 것처럼 말하더니. 말도 되게 친절하게 하고 집에서 여기 오는 교통편도 알아보고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랬어요? 난 아닌 것 같던데.”

연주는 지윤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면접을 본 선생님은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가면이었을까. 동물을 오래 봐 온 연주지만 사람 마음을 읽는 것은 이상하게도 별개의 감

각으로 인식되었다.

사람의 진심을 읽는 것.

자신 역시 인간이지만 동족의 속마음을 읽어 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말은 뿌연 안개와도 같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속내와 깊이를 종잡을 수 없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9-20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꽤 오래 버티고 있네요. 아니, 하도 많이 쫓겨나서 이번에는 가면을 잘 쓰고 지내나 봅니다. 사실 위진호 씨 경력을 묻는 전화를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옮긴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더군요. 그때마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시라고.”

전화를 끊고 연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기 잘못된 것만 같아 죄책감에 휩싸였다. 너무나 안일하게 사람을 품으려고만 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는 가릴 눈이 있어야 했는데 연주는 악을 끌어안고 있었던 셈이었다.

2-1. 길연주는 평소 어떤 성격입니까?

2-2. 2-1을 고려하여 길연주가 위진호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지도 tip] 1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개연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1권 이어 읽기) 테오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 순간, 테오는 티그리스의 죽음에 가담했던 동물 복제 연구소의 직원들이 떠올랐다. 인간은 참, 제복과 직책이라는 가면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테오는 고덕이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질까 봐 두려웠다.

너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았니.

고덕이 의구심을 품고 물었다면 테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그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소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걸 알기에 저는 죄를 보는 세 번째 능력을 제 다섯 번째 능력 안에 가둬 뒀어요. 그 그릇 속에 제 능력을 봉인했어요. 티그리스가 죽고 이 능력의 의미를 알게 된 이후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져서.

테오는 고덕에게도 차마 그 말만은 할 수 없었다.

미국에 있을 때 서준은 동물 복제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개체 연구에 참가했다. 복제 양 '돌리'처럼 살아 있는 모든 동물의 DNA를 완벽하게 복제하여 다음 세대가 아닌 그 개체를 또다시 성체로 태어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연구였다.

그리고 동물원을 끼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던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바로 백호였다.

하얀 호랑이…….

그 완벽한 개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진 호랑이들이 태어나 버려지는지 대중은 알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친 호랑이를 교배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들이 부산물로 취급되어 연구소 한편에서 안락사당하기도 했다. 서준은 그걸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새끼 대부분은 태어난 직후 죽거나 기형으로 살아가는데, 개중에 가장 큰 구개 기형을 안고 태어난 백호 새끼 한 마리가 서준에게 배당되었다. 자연에서라면 1만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날 정도로 희귀하지만 연구소는 혈연관계인 백호를 근친 교배시켜 인위적으로 태어나게 했기에 높은 확률로 태어날 수 있었다.

'TA1297'로 불리는 그 기형 호랑이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한 가지는 그를 생명으로 대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서준의 휴대 전화 속에 저장된 새끼의 동영상을 본 테오는 금기를 깨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티그리스.

<중략>

누군가의 제보로 연구소 안에서 DNA 복제뿐만이 아닌 근친 교배의 비윤리적 동물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연구소장은 하루빨리 증거물들을 인멸코자 했다. 그리고 연구소가 비는 헬러윈데이를 디데이로 잡았다.

연구소장이 보낸 가면을 쓴 사람들이 사육 시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티그리스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녀석에게 약물을 투여할 준비를 했다.

서준이 막아섰지만 그들은 저항하는 서준의 두 팔을 뒤로 꺾은 채 벽에다 밀어붙였다. 티그리스를 빼앗긴 테오가 달려들어 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주사기를 꺼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주사 약물을 채웠다.

마치 예방 주사를 놓듯 덤덤하게 주삿바늘을 꽂은 그 순간, 티그리스가 테오에게 달려들었다.

쓰러진 테오를 내려다보던 티그리스는 그의 분홍코를 테오에게 가져다 대고 입술을 핥았다. 바로 그때 티그리스의 마지막 숨결이 테오의 입으로 전해졌다. 그 와중에도 티그리스의 몸 안으로 약물이 계속 주입되고 있었다. 약물은 서서히 모든 장기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지막으로 심장마저 멎게 만들었다. 고통을 참으며 앞발을 버둥대던 녀석은 테오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43-47쪽.

3-1. 테오에게 능력을 준 티그리스는 몇 회차인지 생각해 봅시다.

3-2. 테오가 가뒤편 3회차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추론적 읽기) <보기1>과 <보기2>에서 밑줄 친 부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보기1>

분홍은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을 되짚고 있었다.
 이고덕과 윤테오 모두 천 년 집사 레이스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같지만, 크게 다른 몇 가지가 있다.
 테오의 소명은 ‘백 년 고양이를 찾는 것’이고, 고덕의 소명은 ‘천 년 집사가 돼라’였다. 언뜻 보면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릴 테지만 이 두 임무에는 인간이 모르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분홍은 어렵짐작함에도 선불리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저 생각 없이 털을 핥는 척, 제 털이 침에 젖어 뭉쳐지는데도 생각의 끈이 놓이지 않았다.

<보기2>

“근데 분홍아.”
 이름을 불러 놓고 테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실없게 불러만 놓고 뜸 들이기는. 고덕 집사 닳아 가냐?”
 “……넌 누구야?”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허공에서 엮였다. 둘은 서로를 탐색하듯 바라봤다.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티그리스의 능력치를 받고 내가 읽지 못한 고양이는 없었어. 아직 만나지 못한 소문 속 ‘노묘’는 내 능력 밖이라 읽지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를 만나니 그 생각조차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내 회차를 알고 싶다는 거야?”
 “3회차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 진짜 회차가 궁금한 거야?”
 “아니. 회차 말고 네 원래 존재.”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필기 효과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을 찍어 텍스트를 추출하여 필기를 대신했고, 교수의 말을 녹음하여 자동 텍스트 완성 기능으로 노트를 만들었다. 이미지를 끊어 오고, 소리조차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 주는 기능 덕분에 정작 자기 손가락에 펜을 끼워 글자를 쓰지 않았다. 그것이 어린 세대의 가장 놀라운 변화였다. 손가락을 움직여 글을 쓰지 않으니 쓰는 동안 생각을 굴리고 사유가 끼어들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펜을 잡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유가 흐려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접 겪어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 참고 영상 1: 타이핑보다 강한 손글씨... 학습 효과 실험해 보니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BnRB3JCKSSg&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14>

▶ 참고 영상 2: 필기가 주는 놀라운 효과 | 뇌과학, 필기, 타이핑,

<https://www.youtube.com/watch?v=yi7rN0-nSq8&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13>

2. (사실적 읽기) '합성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나이	서른 초반
경력	
직업	
근무처	
능력	

3. (권 이어 읽기) 다음을 읽고 괄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살아, 살아야 해!

그는 필사적으로 녀석의 심장계를 주무르고 입을 벌려 숨을 쉬게 했다. 살아 있는 어린 생명, '찌찌'라는 귀여운 이름을 두고 떠나려는 그 아이를 붙잡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킷전에서 시끄러운 세상이 물러나고 천국과도 같은 고요가 찾아들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녀석의 입에 또다시 숨을 불어 넣으려는 순간 입안으로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물려들었다.

빛과도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마력과도 같은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았다.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지만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소용돌이치는 이상한 힘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가녀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소리만이 고덕의 귓가에 들렸다.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인 그의 귀에 또다시,

“널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이 반쪽을 지키느라. 이걸 내 목숨과 바꾼 선물이야. 그러니까 꼭 나를 찾아내. 내가 어디서 태어나든, 꼭 나를 찾으러 와.”

“너…….”

“우릴 찌른 짐승을 봤어. 내가, 기억하니까. 엄마는 잊고 떠나야 하지만, 난 기억할 거야. 하지만 당신을……. 그러니 천 년 집사가 돼서 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지만 고덕은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리란 걸.

엄마와 새끼 고양이가 모두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덜 외로웠을까. <중략>

그는 자신이 새끼 고양이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의 입으로 건네준 것이 고양이의 아홉 목숨 중 하나라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35-137쪽.

지하에서 천장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각지대인 반대쪽 창문을 통해 드나든 그의 흔적은 무려 3층까지 이어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런 족적을 남길 수 없었다. 노묘는 가장 두려워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살인마는 새끼 고양이의 생명 반쪽을 넘겨받았다. 그는 고양이의 언어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로써 그도 천 년 집사가 될 수 있는 계단에 올라와 있는 셈이었다.

고덕의 엄마와 함께 살인마 ()의 칼에 찔린 새끼 고양이 ()은/는 죽기 전 고덕에게 생명의 반쪽을 넘겨준다. 이를 통해 고덕은 고양이의 ()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만, 나머지 반쪽에 담긴 고양이의 육체적 능력은 살인마에게 넘어가고 만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1편 이어 읽기) <보기>를 참고하여 존남이 고덕을 미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고덕은 책꽂거리며 구역질을 하더니 입안에서 털 뭉치 하나를 뱉어 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고양이의 헤어볼이었다.

그의 입에 제 헤어볼을 쑤셔 박은 놈은 이 동네 일진 고양이로 불리는 '존남'이었다.

존남은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찢어발겨 놓거나 차의 보닛에 올라가 발자국이나 스크래치를 남기는 악동 고양이로 유명했는데 특히나 고덕에게는 더 고약하게 굴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존나 남성적인'의 줄임말인 존남은 동네 암컷을 후리고 다니며 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유명했고 한 골목을 털면 줄줄이 떨어져 나오는 게 존남의 자식들이라 했다. 존남은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 놓은 덫에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데다 덫치 또한 강아지를 위협할 정도로 악성 민원의 단골이기도 했다.

그런 존남이 다름 아닌 고덕을 짖었다.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활동 반경이 넓은 존남은 고덕의 과거지사를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양이들이 집을 떠난 일이나 고덕이 사료와 캣타워를 버린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존남이었다.

그랬으니 죽어 가는 고양이들을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양이들을 쫓아다니는 게 수상쩍어 보였을 것이다. 고양이 연쇄 살해범의 등장에 가뜩이나 길바다에 어수선했는데 고양이 말을 하는 고덕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존남은 고덕을 믿지 않았다.

고양이를 지키다 순교한 정 여사의 미치광이 아들로 소문난 고덕에게 복수하기 위해 존남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고덕의 차를 긁거나 오줌을 갈겨 놓는 것은 기본이고 그가 가는 길목에 뛰어들어 얼굴을 할퀴고 귀를 물어뜯는 일도 있었다.

타이슨도 아니건만 귀를 물어뜯은 뒤에는 그의 얼굴에 고양이 핵펀치를 날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은 넘어뜨린 고덕의 입안에 제 헤어볼을 쑤셔 넣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고덕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얻어터지고 스토킹을 당하는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참고 또 참아야 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51-153쪽.

1-2. (사실적 읽기) **존남이 밑줄 친 것과 같은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날 네 고양이로 받아 줘.”

“안 돼!”

고덕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너 제정신이야? 날 그렇게 증오했던 네가 내 고양이가 되겠다고?”

사랑과 증오가 깃딴 한 장 차이이지만, 이런 극단적 감정 변화는 무서울 지경이었다.

1-3. (사실적 읽기) **고덕이 존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고덕이 가진 능력 세 가지는?

2. 죄과를 읽는 방법은?

3. 함성혁이 사고가 난 경위는?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과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고양이의 출산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 참고 영상: 고양이 출산 | 구조한 길고양이 '연이'

<https://www.youtube.com/watch?v=CeqjRj6OnpA&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11>

이윽고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완전히 하얀 고양이였다. 어미 고양이는 막을 찢고 새끼를 핥기 시작했다. 새끼 고양이는 눈도 못 뜬 채 어미의 젖을 찾아 짹짹거리며 울었다. 어미 고양이에겐 또다시 진통이 찾아오자 연주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젖을 찾아 헤매는 새끼 고양이를 깨끗하게 닦고 어미의 젖을 물려 주었다. 연주는 어미 고양이에겐 등을 돌리고 앉았다.

한참의 진통 끝에 또다시 한 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났다. 흰색 양말을 신은 턱시도 고양이였다. 어미 고양이가 정성스레 핥고 나자, 연주가 고양이를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고 어미의 젖을 물려 주었다. 그리고 또 한참의 진통이 계속되었다. 20분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고양이가 나오지 않자 연주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어미 고양이가 젖 먹던 힘을 쥐어짜 아기를 밀어 내려 했다. 보다 못한 연주가 배 쪽을 살짝 밀자 물렁한 막에 쌓인 셋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산도에 걸려 있어 연주가 손으로 빼냈다.

어미는 탈진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막을 찢어 줄 여력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연주가 셋째 고양이의 막을 찢고 분비물들을 닦았다. 셋째 고양이는 연주의 손끝으로 감겨 들어왔다. 마치 연주가 어미인 것처럼 자꾸만 손바닥에 코를 박고 짹짹거렸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받았지만 묘한 일이었다. 게다가 셋째는 흰털이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검은 암컷 고양이였다.

3-2. (사실적 이해) 151~153쪽의 내용을 토대로 세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그려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3-3. (비판적 이해) 작품 속 삼순의 환생인 고양이 '두렵'의 이름을 평가해 보고 이 고양이에게 어울리는 새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원장님네 고양이들은 다들 장수 고양이라 원장님이 이름 지어 주시면 이 아이도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럼…… , 두 러브(Do love). 사랑하다. 줄여서 ‘두렵.’”

고덕은 놀라 입을 벌렸고, 테오는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가? 너무 입에 안 붙나?”

“아니, 처음에 ‘드립’으로 들어서.”

바로 그때 날카로운 발톱이 고덕의 발목을 핏뚱이 흘렸다.

“뭐가 드립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니, 그게 진짜 드립다는 게 아니고, 어감이 살짝…….”

셋째가 고덕에게 달려들자, 테오가 흥분한 셋째를 감싸 안고 말했다.

“원장님. 전 두렵, 정말 좋아요. 바로 ‘사랑하다’로 들렸어요.”

“정말?”

“미국인이 ‘사랑하다’로 들린다는데 끝났네, 끝났어.”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아래 표를 채워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밀적금강	나라연금강
다른 이름	()금강역사	()금강역사
입의 특징	입을 다물고 있음	입을()
위치	금강문()쪽	금강문()쪽
특징	무기() 있음	무기 없음

1-2. (추론적 읽기) 1-1과 <보기1>을 고려하여 <보기2>의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1>

할멈은 그제야 깨달았다. 고덕의 고양이 분홍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밀적금강역사였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대로 오래전부터 밀적금강이 고덕의 곁을 지켜 주고 있었음을. 라의 사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곁에 밀적이 있다면 그 누구도 고덕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할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기2>

고덕의 시선이 분홍의 배에 머물렀다. 꼭 아령 모양처럼 웃기게 생긴 검은색 무늬가 오늘따라 도드라지게 보였다. 평상시에는 개빠다귀처럼 생겼다고 놀리던 무늬였는데 달빛을 받으니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마치 손잡이가 달린 작은 창 같기도 하고 비수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덕은 그 무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2. (권 이어 읽기) 다음을 읽고 막내의 정체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녀석의 입에 또다시 숨을 불어 넣으려는 순간 입안으로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몰려 들었다. 빛과도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마력과도 같은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았다.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지만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소용돌이치는 이상한 힘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가녀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소리만이 고덕의 귓가에 들렸다.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인 그의 귀에 또다시,

“널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이 반쪽을 지키느라. 이젠 내 목숨과 바꾼 선물이야. 그러니까 꼭 나를 찾아내. 내가 어디서 태어나든, 꼭 나를 찾으러 와.”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35쪽.

할멈이 막내의 등을 앞으로 밀어 문수보살에게 보내며 말했다.

“거두어 주십시오.”

“……머지않아 피바람이 불어닥치겠지. 검은 살인귀가 곧 자기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이 아이의 목숨을 찾아 다닐 걸세. 모자란 반쪽을 완성하기 위해 그자는 필연적으로 이 아이의 목숨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고양이의 세상에서 이 사찰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네.”

3. (창의적 읽기)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봅시다.

줄무늬는 이미 자기 회차 완성도의 답을 어렵פות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을 찾아온 것은 그 커져 가는 두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만약 회차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희는 다시 1회차로 태어난다며. 영원한 죽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게 영원한 죽음이지.”

고덕은 줄무늬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쌓아 온 능력이 없어져서?”

“아니. 그때까지 함께한 존재들과 그 기억이 모두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니 스쳐 지나가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고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다섯 마리 고양이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마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새끼 고양이들을 버렸다. 고덕의 엄마는 고양이 밥은 챙기면서 남편과 자식의 끼니는 챙기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아들인 자신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는 고양이들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추운 날이었다. 누군가 고덕의 집 앞에 함부로 버리고 가면서 사랑으로 키워 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다섯 마리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 줬으면서도 새끼 고양이들을 박스째 유기했다. 고덕은 엄마가 알기 전 그 고양이 박스를 들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24시간 진료라는 그 동물병원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병원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곧 사람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혹시 몰라 제 점퍼를 벗어 고양이들을 덮어 주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고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병원에 들렀다. 박스는 여전히 닫힌 문 앞에 있었다. 고덕이 덮어 준 점퍼 아래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는 모두 얼어 죽은 채였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232-233쪽.

1-1. (사실적 읽기) 다음 표를 완성하여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의 환생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1-2. (추론적 읽기) 첫째의 환생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추론해 봅시다.

2. (사실적 읽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밀적이 평범한 고양이로 태어난 이유는?
2. 어린 고덕이 다섯 마리 고양이를 동물병원 앞에 버린 이유는?
3. 밀적이 회차가 완성되지 않은 채 죽은 다른 형제들을 죽음의 사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한 이유는?
4. 첫째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5. 할머니가 눈을 다친 이유는?

3. (추론적 읽기) 할멈이 문수보살에게 받은 ‘등’을 쓰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심부름을 온 불목하니가 할멈의 이마에 머리를 맞대니 눈앞의 시야가 밝아졌다. 먼 길을 올 할멈을 배려해 문수가 눈이 될 등 하나를 내어 준 것이었다.

그 등을 눈앞에 달고 나니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이전보다 더 환한 빛으로 다가왔다. 할멈은 느릿한 걸음으로 불목하니의 뒤를 따라갔다. 산길로 들어가니 산 초입에 설치된 운동 기구들이 보였다. 철봉을 통과하자 그것은 곧 절의 일주문이 되었다. 금강문을 지날 때 할멈의 눈은 잠시 비어 있는 왼쪽 너럭바위에 머물렀다. 할멈은 문수보살을 보자 머리 숙여 합장했다. 문수는 할멈에게 인간 세상의 일 하나를 청했다.

“그리고 그 등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보답이야.”

“문수보살이시여, 외람되지만 이 보답을 복주머니에 따로 간직했다가 나중에 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네 큰 부탁을 하려는 게로군.”

“그저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계. 그래도 그 등은 자네가 가지게나. 자네의 빛나던 두 눈에 비할 바는 아니나 유용하게 쓰일 게야.”

“감사합니다.”

문수보살의 청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 할멈은 등을 끄고 가만히 자신 안에 담아 두었다. 그걸 보고 막내가 할멈에게 물었다.

“그리 좋은 등을 받았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나를 눈먼 고양이라 부르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그리고 눈을 감고 심안으로 주위를 보니 살아 있는 것들의 형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구나.”

“그냥 선물 받은 등을 쓰지, 왜 안 쓴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할멈은 빙그레 웃고 더 답을 하지 않았다.

[지도 tip] ‘등’의 상징성을 고려하거나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고려하여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1권 이어 읽기) 다음을 읽고 함성혁이 고덕의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괴상하게도 운이 좋았던 그날, 고덕은 석 달째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던 오피스텔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을 만나러 집으로 가고 있었다. 교차로 여덟 개를 통과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빨간불에 멈춰 서지 않은 희한한 행운을 만끽하며.

으레 생기던 추가 업무 없이 정시에 퇴근하는 일조차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순경 생활 1년 차라 계속 3교대를 하고 있었고 늘 잠이 모자란 상태로 일에 치여 있었기에 집은 엉망이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는 사람이었고 쓰레기 더미를 방불케 하는 집 안 상태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오직 가까운 거리 때문에 단 3분 만에 계약을 결정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121쪽

길상로 90번길, 1403호.

고덕이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오피스텔의 주소였다. 그 말인즉슨 그가 살던 오피스텔의 다음 세입자가 함성혁이었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라의 사자들은 함성혁을 고덕이라고 착각하고 그를 쫓은 게 아닐까. 함성혁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한 질문이 생겨났다.

먼 기억 속에서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오피스텔을 보자마자 계약하겠다고 했던 그날의 세입자가 떠올랐다. 기억 속에 얼굴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말투, 옷차림은 희미하게 남았다. 그는 엉망인 집 상태는 개의치 않고 오직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의 위치만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 주소지는 A병원과 지척에 있었다. 병원은 고덕이 노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러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다.

2.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질문에 답해 봅시다.

“너희는 왜 이 일에 개입하지?”

“글쎄, 그건 너희 언어에는 없는 말이라.”

“구석기 외국 고양이인 거 다 아니까 티 내지 말고 너희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수레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다. 또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어째서?”

“더 빠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얼 해야 하지?”

“더 빨리 도는 수레가 그놈인가?”

“훗!”

아비시니아 고양이는 묘한 웃음을 흘린 채 입을 다물었다.

이로써 모든 상황 판단은 끝났다. 밀적은 이들을 더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할멈의 우려처럼 저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고덕과 테오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2-1. (추론적 읽기) ‘수레를 제대로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2. (사실적 읽기) 밀적은 라의 전사들이 수레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 생각했는지 말해 봅시다.

2-3. (사실적 읽기) 수레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라의 전사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3. (추론적 읽기) 다음 신탁과 예언의 내용을 고려하여 누가 천 년 집사가 될지, 누가 새로운 라의 사자로 태어날지 추측해 봅시다.

“이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여길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해. 그대들의 신탁은 천 년 집사가 되는 이가 검은 물에 물든다고 했다던데 그 신탁이 틀릴 수도 있잖아.”

“신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또한 너희 땅에서 새로운 라의 사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또 다른 신탁이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온 이유도 있었다?”

“신탁이 그리 친절하거나 자세하지 않아서 그 순간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알지 못해.”

줄무늬는 고덕을 바라보았다.

“경찰 인간, 혹시 천 년 집사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나?”

“천 년…… 집사?”

고양이들은 천 년 집사의 소문을 정작 당사자인 고덕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록 그 뜻은 모르더라도 새끼 고양이가 죽어 가며 남긴 마지막 유언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그래, 고양이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인데?”

“천 년에 한 번 나오는 인간 집사가 억압받는 고양이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예언이야.”

“너희 세계도 그런 허무맹랑한 믿음이 있나?”

“흥, 여전히 이성 줄만 부여잡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인간이군. 좋아,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인간들의 말대로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251-252쪽.

천 년 집사는 ()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가 라의 전사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4. (추론적 읽기) 다음을 참고하여 ‘호루스의 눈’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정체를 추측해 봅시다.

“기다려! 넌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남은 자, 그자는 어떻게 됐나?”

보마니는 다친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다른 발로 막으며 말했다.

“한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신탁을 깰 수 없었어. 다만 호루스의 눈에서 그 조각을 가져왔지.”

“그를 찾아갔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군.”

호루스의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도 그가 맺은 말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다. 신탁을 깨지 못하기에 살인마를 죽일 수 없었다면 애초에 고덕과 테오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중략〉

“호루스의 눈이 조각조각 나 흩어지게 하면 돼.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고 해도 결국 빠져 버린 그 하나의 조각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움켜질 수 없게 돼.”

남자는 막내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있는 듯했지만, 사실상 도망가지 못하게 목을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막내의 몸을 만지는 순간, 그 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거야, 이거! 빨리 빼앗아! 빨리!’

남자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이 정체불명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웠다.

‘죽여, 어서!’

그 목소리에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노란 고양이 하나가 나타나 그의 손을 핏대했다. 다친 손을 누르며 바라보니 늙은 고양이가 온몸으로 어린 고양이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노묘의 눈과 마주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탐스럽다! 우아, 저 영롱한 눈을 봐! 저 안에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어!’

〈중략〉

그러나 제 안의 여러 목소리가 충돌했다.

‘저 조그만 고양이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저놈이야, 저놈!’

‘아니야! 이 늙은 고양이의 목숨을 빼앗아! 이 고양이는 수천 마리의 고양이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어!’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목소리가 그의 귓전에서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가 소리쳤다.

“그만!”

삶은 눈동자와 거래를 했다.

자신의 터전이 짓밟혀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뺏지만 그중 한 마리를 천 년 집사에게 내어 주어야 했다. 눈동자는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다리를 못 쓴 채로 태어날 것이란 걸 미리 알려 주었다. 지킬 수 없는 그 한 마리를 경찰 인간에게 내어 주면 남은 세 마리를 지킬 새로운 터를 얻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1》, 287-288쪽.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유기묘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매년 2~3만 마리가 유기묘가 돼요” 모든 걸 줄 것처럼 데려가서는 매몰차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고양이들
고양이를 부탁해 | 알고e즘

https://www.youtube.com/watch?v=Bi42xKY_Bj4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고양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f6cw3xwIUD8>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유기 동물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유기묘의 천국, 인천 고양이역 보호소 봉사 활동

https://www.youtube.com/watch?v=c8UQU_Omlq0

4.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캠페인 활동을 해 봅시다.

1. 동물 유기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
2. 반려동물을 키우는 바람직한 자세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
3. 유기 동물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
4. 유기 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

- ▶ 참고 영상: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알리는 입양의 의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HpgPSG2k8>

[지도 tip]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봉사 활동과 연계하면 더욱 좋습니다.